

40년 묵인 화진포호 규제 해제 요구

현내·거진 주민들 플래카드 내걸어 ... 주민 서명 받아 도지사에게 건의서 제출 계획

현내면과 거진을 주민들이 40여년간 문화재보호법으로 묶여 각종 지역개발에 장애가 되고 있는 화진포호수에 대한 규제를 풀어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화진포호수는 1971년 12월 16일 지방기념물 10호로 지정돼 40여년간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규제를 받고 있다.

현내와 거진지역 주민 대표들은 최근 모임을 갖고, 화진포 호수에 대한 문화재보호법 규제를 풀어줄 것을 최문순 도지사에게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지난 2일 '최문순 도지사님, 화진포 호수 규제를 풀어주세요'라는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를 도로변에 내걸었다.

주민들은 또 현내면과 거진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서명을 받아, 공식 건의서를 강원도에 제출할 계획이다. 아울러 필요하다면 간성읍, 죽왕면, 토성면 등 다른지역 주민들과도 연계해 나가기로 했다.

주민들은 특히 문화재 지정으로 인해 개발에 대한 제약뿐만 아니라, 호수의 환경개선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민들에 따르면 인근 하천에서 화진포호수로 유입된 토사로 하상이 높아져, 과거 사람 키를 훨씬 넘었던 호수의 깊이가 현재는 허리에도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주민들은 "보호하지도 못하고 이용하지도 못하는 고성군의 자

랑인 화진포 호수를 언제까지 문화재보호법이라는 규제에 묶여 지켜만 봐야하냐"며 탄성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주민들은 "남북관계의 경색으로 관광산업이 침체되면서 이제는 끼니를 걱정해야 할 정도로 지역경제가 피폐해져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암담한 현실이 이어지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주민들은 (주)리솔리조트의 국제 휴양관광지 조성과 현대아산의 관광호텔 신축계획 등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화진포 호수도 규제를 풀어 주민들이 개발 이익을 볼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현내면 변영회장 이명철 회장



최근 현내면 도로변에 화진포 호수 규제를 요구하는 플래카드가 내걸렸다.

(53세)은 "화진포 호수는 20여 년전에 건설된 주변도로에 수많은 차량들이 오가며 일으킨 흙먼지 등의 퇴적물이 바닥에 쌓여 흙을 파헤치면 썩은 냄새와 검은 색깔로 변한 흙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며 "겉만 멀쩡하고 속은 썩은 화진포 호수를 언제까지 문화재보호법이라는 감옥안에 가둬두고 지켜만 봐야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광연 기자



제20회 아야진초등학교 총동문회 체육대회가 지난 5일 모교 운동장에서 열렸다.

아야진초교 동문 화합 다져

제20회 총동문회 체육대회 600여명 참가

제20회 아야진초등학교 총동문회(회장 김종환) 체육대회가 지난 5일 전국에 흩어져 있는 동문 가족 6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모교 운동장에서 성대하게 치러졌다.

아야진초교 총동문회는 이날 행사에서 축구, 족구, 이어달리기, 단체줄넘기, 줄달리기 등 체육경기를 함께 하며 동문간 우정과 화합을 다졌다.

다음은 이날 내·외빈 참석자 명단이다.(이름은 총동창회 제공 순)

황종국 고성군수, 송훈석 국회의원, 한봉기 소청심사위원회상임의원, 함명준 고성군의회 부의장, 김진 고성군의회의원, 박효동 강원도의회의원, 김주일 재경아야진초교 총동창회회장, 지승연 재경고성군민회회장, 최승명 재경고성군민회 사무총장, 최을규 재

경고성군민회 수석감사, 김원기 전 강원도의회 부의장, 임종언 재경고성군민회 사무처장, 손문영 재경속초시민회 회장, 남병목 아야진초등학교 교장, 박종철 재경천진초교 총동문회회장, 김정기 천진초교총동문회 수석부회장, 고태성 아야진변영회장, 김장민 아야진초교 운영위원장, 김홍명 토성면 변영회장, 김종환 아야진초교 총동문회회장, 최광호 기자

4만명의 CEO 삼성생명 컨설턴트

삼성생명 CEO는 1명이 아닙니다
삼성생명에는 금융전문 컨설턴트로 활동하는 4만명의 CEO가 있습니다
당신도 4만 삼성생명 CEO의 일원이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 모집 요강**
- 지원자격 : 만 20세 이상의 남녀
 - 지 역 : 고성군
 - 선발절차 : 직무설명회 ▷면접▷교육▷등록

삼성고성보험대리점
☎682-4480

동부·삼성·현대
손해보험 판매

입사상담

- ◇김양희 010-3382-4011
- ◇김지윤 010-4311-4985
- ◇문순선 010-4769-2868
- ◇원정숙 010-9243-2575
- ◇유수현 010-7169-6594
- ◇유은미 011-376-1752
- ◇이순성 010-4654-5659
- ◇이춘옥 010-8798-4330
- ◇정웅실 010-7681-4309
- ◇정춘자 011-747-6123
- ◇허금녀 016-341-3762